

美·日·中 정상 통화 마친 이 대통령… 이시바와 먼저 통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엿새 만에 미·일·중 순으로 각 정상들과 상견례 성격의 통화를 마쳤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불과 하루 차이기는 하지만 일본을 중국보다 먼저 택한 것을 놓고 사실상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노선에서 우선순위를 가늠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비록 이 대통령의 취임축하 상견례 성격의 통화라 양국 간 주요 현안이나 민감한 의제에 관한 대화를 밀도감 있게 주고받지 않았지만, 대미(對美)·대일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6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약 20분간에 걸친 첫 통화에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한미 간 관세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합의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 방미 초청했고,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다섯 만에 가진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약 25분간 통화에서는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고,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이시바 총리와 의견이 일치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6일 만에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마친 후 “우리에게 중국은 경제, 안보 등 모든 면에서 중요한 파트너”라며 “금년과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양국이 APEC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 취임 6일 만에 한반도 주변국 3強 통화 마쳐
트럼프·이시바와 통화하며 한미동맹·한일·한미일 공조 강화 표명
시진핑과 통화에서 경주 APEC 초청… 중국 중요한 파트너로 강조

긴밀히 협력하면서, 양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X(구 트위터)에 썼다.

일각에선 시차와 상대국 사정 등을 고려해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정상 통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통화 순서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지만, 신임 대통령의 통화 순서가 정부의 외교 방향성이나 전략 설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러한 상징성을 고려해 통화 순서를 신중하게 검토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취임 후 대통령이 갖는 통화 순서가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증하는 척도라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은 대체로 취임 후 미국과 제일 먼저 통화하고 일본 또는 중국 순으로 정상 통화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12월 Barack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한 후, 이듬해 3월 6일 아베 신조 총리에 이어 3월 20일 시 주석과 통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10일 당선 확정 당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 후 이튿날인 3월

1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를 가졌다. 시 주석과는 보름이 지난 3월 25일에 통화를 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일인 2017년 5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했지만 이튿날 시 주석, 아베 신조 전 총리 순으로 통화했다.

외교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고, 이시바 총리와의 향후 직접 만나 양국 간 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한 만큼 G7 정상회의의 기간 중에 한미·한일 양자 회담 또는 한미일 정상 간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보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국회 공간서 협력 중요”
우상호 “李, 국회 존중·소통 원칙 지킬 것”

우원식·우상호, 신속한 추경 프로세스에 공감대 형성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국회와 대통령실간 협력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우상호 수석은 ‘국민주권정부는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국정을 잘 이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정을 전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우상호 수석을 만나 “우상호 수석은 17대에 국회를 같이 들어와서 아주 오랫동안 당 활동을 했다”며 “너무나 깊은 곳까지 같이 있는 분이기에 너무나 정부감각이 뛰어난 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라는 공간에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우상호 수석이 크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우상호 수석은 “지난번 계엄 때 우원식 의장 중심으로 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계엄 해제해서 민주주의를 지켰던 감동을 기억하고 있다”며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국민이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국회의 권능을 확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국회를 찾아뵙는다고 했더니 ‘국민주권정부는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을 통해서 국정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기본 원칙을 잘 지키겠다는 것을 전달해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크고 작은 일마다 의장과 소통하면서 삼권분립이지만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 협력과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며 “개인적으로 같은 집안 할아버지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더 존중,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예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이 가진 특수한 친밀한 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사담이 오갔다”며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대통령 정무수석으로서 앞으로 국회와 행정부간 큰틀에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대통령과 국회 차원 소통 채널이 막혀 있었는데 앞으로 국회, 행정부간 매끄러운 소통을 통해서 협력해 나간다는 데 두 사람이 깊은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이어 “개별 사항과 관련해서는 추경경정예산에 대해서 신속한 프로세스를 우선(적)으로 정무수석으로서 국회의장에 협조 요청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이 공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상호 수석은 이날 우원식 의장을 시작으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차례로 예방할 예정이다. /뉴시스

국힘, ‘김용태 거취·개혁안’에 내홍 길어지나… 차기 지도체제 주목

김용태, 당 의원들에 “개혁안 받을 것인지 답해달라”

당초 오늘 예정된 의총 열지 않기로… 추후 일정도 미정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개혁안과 임기 문제 등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홍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5시간이나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오는 16일 새 원내대표를 뽑은 이후에야 차기 지도체제 문제 등이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제38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마친 뒤 기

자들과 만나 “제 임기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의총에서 의원들이 제가 제시한 개혁안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주 제 개혁안에 대해 절차가 어땠고, 임기가 어땠고 말하는 것은 개혁안을 받아들이 의지가 없다고 해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개혁안은 당이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국민들

에게 신뢰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그마저도 저를 향해 개인 정치를 위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제 임기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치부한다면 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까지다. 당내에서는 개혁안 추진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의원총회를 열고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비롯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과정 당무 감사 등 당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일정 등을 감안해 열지 않기로 했다.

아직 의원총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비대위원장 임기와 개혁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도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6일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에 눈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김 비대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고, 차기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권리도 주어지기 때문이다.

성일중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위원장이 임기를 연장한다고 하면 당헌·당규에 맞도록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 부분은 신임 원내대표가 뽐하게 되면 비대위원장하고 협의를 하게 될 것이고 의총에서 의원들의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APEC 2025 KOREA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APEC 2025 KOREA

이 글씨판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